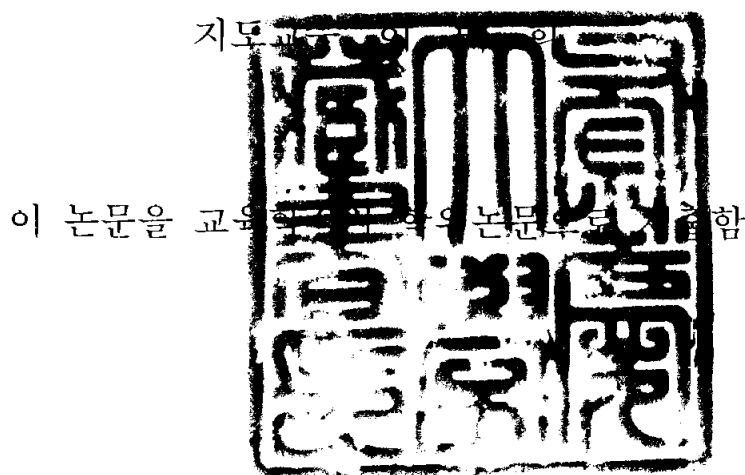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부산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양 회 용

양회용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6월 일

주 심 정치학 박사 김 진 기 (인)

위 원 정치학 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 박사 하 봉 규 (인)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 및 연계된 교육과정	5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5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체 현황	5
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7
2. 실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11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1
나. 2년제 대학 경영관련학과의 교육과정	15
다. 연계된 전공과목의 교육과정	17

III. 교육과정 및 학업 성취도의 개념	23
1. 교육과정의 개념	23
가. 교육과정	23
나. 교육평가	24
2. 학업 성취도	26

IV. 부산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 분석	31
1. 연구의 대상	31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1

나. 설문의 구성 및 분석기법	32
2. 가설의 설정	34
3. 설문내용의 분석	34
가. 고등학교와 관련된 견해	34
나. 대학전학과 관련된 견해	37
다. 전체성적에 대한 학업 성취도	41
라. 연계된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43
마.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56
바. 졸업 후 진로계획	58
4. 가설의 검증	60
V. 결론 및 제언	62
1. 결론	62
2. 제언	64
참고문헌	66
부록 : 설문지	68

표 목 차

<표Ⅱ-1> 전체 고등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6
<표Ⅱ-2> 부산시 고등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7
<표Ⅱ-3>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추이	8
<표Ⅱ-4> 부산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추이	9
<표Ⅱ-5> 실업교육 육성방안	10
<표Ⅱ-6> 제 6 차 · 7 차 전문교과 교육과정 비교(상업에 관한 교과)	13
<표Ⅱ-7> 상업계열 과목 군	14
<표Ⅱ-8> 수준별 교육과정	15
<표Ⅱ-9> 2년제 대학 경영관련학과의 교육과정	17
<표Ⅱ-10> 전공과목별 연계과목	21
<표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Ⅲ-2> 설문지의 구성	32
<표Ⅲ-3> 고등학교에 목표로 한 대학	35
<표Ⅲ-4>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36
<표Ⅲ-5>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37
<표Ⅲ-6> 대학진학에 대한 만족도	38
<표Ⅲ-7>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39
<표Ⅲ-8> 학과선택에 대한 고려	40
<표Ⅲ-9>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 정도	41
<표Ⅲ-10> 1학년 1학기 전체성적	42
<표Ⅲ-11> 1학년 2학기 전체성적	43
<표Ⅲ-12>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44
<표Ⅲ-13>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45
<표Ⅲ-14> 전공수업의 흥미정도	46
<표Ⅲ-15>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	47
<표Ⅲ-16>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	48
<표Ⅲ-17>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49

<표Ⅲ-18>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	50
<표Ⅲ-19> 전공이론과 실습과목의 이해정도	51
<표Ⅲ-20> 전공교과의 이해부족 사유	52
<표Ⅲ-21> 경영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53
<표Ⅲ-22> 회계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54
<표Ⅲ-23> 무역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55
<표Ⅲ-24> 전산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56
<표Ⅲ-25>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	57
<표Ⅲ-26> 전공과목대비 교양과목의 성적	58
<표Ⅲ-27> 졸업 후 학생진로에 대한 의견	59
<표Ⅲ-28>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생각	60

THE INDUSTRIAL BUSINESS HIGH SCHOOL OF BUSAN DISTRICT :
GRADUATES' STUDY ACHIEVEMENT

Hoe-Yong Y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determine the change in university enrollments with regard to industrial business high schools. The number of industrial business high school students enrolling in university programs has never been higher. My goal is to analyze students' grades in high school with their achievements in their major and cultural studies. This analysis will allow m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fluid educational program between high school and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s on Busan district students who are specializing in management programs in college. Data was collected in two ways: student record and student surveys. I was able to distribute 400 surveys and collect 371 surveys for my research. The results of my surveys were analyzed and inputed into a SPSS Win 10.1 program.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1st: Students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a liberal arts program tend to enter university during the day. Other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a liberal arts programs had a stated goal of attending university during the day, compared with industrial business high school (IBHS) students, whose goals were to attend college. The IBHS and the liberal arts high school (LAHS)

students had different reasons for attending university or college. The LAHS students goals were to attain a job, while the IBHS students wanted social recognition.

2nd: Comparing the grades of the liberal arts high school (LAHS) and industrial business high school (IBHS) shows that the LAHS students are achieving better scholastic results than the IBHS students. This means that the IBHS students have inferior study abilities.

3rd: Comparing LAHS and IBHS students' achievements in their majors shows that LAHS students have difficulty in computer-related subjects, while the IBHS students have difficulties with management and accounting, trade. The fact that the IBHS students show better achievements in computer-related subjects is a result of their past educational experience.

4th: With regard to cultural subjects, the LAHS students tend to achieve somewhat higher results than the IBHS students. This cause can be linked to the fact that IBHS students are inferior in Korean and English compared with LAHS students.

From this data, I will offer some conclusions.

1st: The IBHS was at onetime appropriate for students who would not have under taken continuing education, but this has recently changed The IBHS students have had to change their education styles due to these changes in society. This reorganization must take place since the role of the students have fundamentally changed. A great emphasis must be placed on fundamental knowledge.

2nd: Re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local community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aptitude and interests of the learner.

3rd: An increase in counselling of students with regard to performance must be increased, so the students do not become dissatisfied with their education.

4th: The LAHS and the IBHS need to have a more complementary system with which to help students' educational progres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력사회란 學歷 즉 제도권 교육의 이수연한 정도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의해 사회적 우대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¹⁾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등의 어느 학력에 속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위상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학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더 높은 학력을 물려주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 사람들은 이것을 교육열이라 불렀다. 이러한 뜨거운 교육열의 덕택으로 외형상으로 우리의 교육규모는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팽창하였으며, 특히 학력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삼십 년 전에는 고졸만 하더라도 괜찮은 학력이었으나 요즘은 대졸이 아니고서는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열망은 개인의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한국인들은 학교를 업적주의 신화와 연결시켜 인식하고 있다.²⁾ 학벌이나 학력이 높으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교에 대한 업적주의적 신화, 곧 학교를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한국 교육열의 핵심을 이루며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으로

1) 김동훈, “학벌·학력사회의 폐해와 교육관의 혁신”,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2001. 특별호), p.30.

2)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00, pp.23-24.

구체화되었다.

한국 사회의 대학 진학열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기능을 습득하여 해당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보다 중학교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기술 습득보다는 여전히 대학진학에 대한 꿈과 미련은 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열등의식과 적성, 능력을 도외시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실업교과에 흥미를 잃고, 진로계획에서도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되었다. 특히 단순기술·기능직으로서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간의 임금격차 또는 고졸사원과 대졸사원 간의 임금격차의 심화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을 계획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되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20% 미만에 머물면서, 진학자가 대부분인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2003년 현재 88%를 상회하면서 여학생의 취업률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57.6%가 진학³⁾하고 있어 이들의 진학욕구가 매우 크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직후 진학할 수 있는 통로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진학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기능 인력화를 국가 수준에서 촉진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⁴⁾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것에 있지만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적 생활 수준의 상승, 학력중심의 사회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실업계 학생들에게 종국교육만을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http://www.moe.go.kr/servlet/BulletinServlet?cmd=list>)

4)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한국교육개발원, 2003, p.33.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산업 사회에 진출 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속 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진학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경영관련 학과로 진학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할 내용으로는 전체 성적 및 고등학교와 연계된 전공과목, 교양과목의 성적이며 이를 비교·분석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나.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정하고 모집단을 선정하여 표집 하였다.

다. 연구에 이용할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 정리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라.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전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1 통계용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였다.

마. 본 연구의 조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년제 대학에서 현재 경영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가. 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소재 2년제 전문대학의 경영관련학과의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다르므로 결과에 대한 동일한 적용은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나.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였으나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모든 변인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II.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 및 연계된

교육과정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체 현황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의 실업 교육은 우리 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의 목표가 선진산업사회로의 약진에 있다고 볼 때,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질적 향상에 대한 그 중요성은 더욱 점증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은 현재 사회전반의 학력만능주의 및 평생 교육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진학이 용이한 인문계 고교를 선호하며, 그 나머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풍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출신자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계속 교육에 의한 기술 수준 향상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고, 2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도 계속 교육의 기회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등 직업교육에 유입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5) 『고등학교 실업계 계열교육과정해설-상업 계열』, 교육인적자원부, 2003, p.149.

정책 결정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규제로 인해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38.1%를, 학생 수에서는 45.3%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72%(1999년)에 이르렀음을 볼 때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교육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표Ⅱ-1> 전체 고등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현황⁷⁾

단위: 개교, 명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졸업생수	진학자수 (진학자수/ 졸업생수)	취업자수
1999	762(39.2)	19,116	851,751(72.0)	42,360	259,626	112,130(43.1)	148,478
2000	764(39.0)	18,531	746,986(63.7)	40,977	272,010	122,170(44.9)	149,543
2001	759(38.9)	17,867	651,198(54.5)	39,810	270,393	121,411(44.9)	130,968
2002	741(38.7)	17,890	575,363(48.1)	39,906	231,127	115,103(49.8)	104,138
2003	734(38.1)	17,471	542,077(45.3)	39,163	189,510	109,234(57.6)	72,212

※() 안은 전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한편 부산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은 <표Ⅱ-2>에서와 같이 학교 수와 학

6)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pp.29-36.

7)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99-2003,
(<http://www.moe.go.kr/servlet/BulletinServlet?cmd=list>)

생 수, 진학자의 비율 등은 2003년 기준으로 학교 수에서는 34.0%, 학생 수에서는 35.4%, 진학자수에서는 63.2%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진학자 비율이 63.2% 인 것은 실업계 고교의 교육이 중국교육이 아니며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표 II-2> 부산시 고등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⁸⁾

단위: 개교, 명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졸업생수	진학자수 (진학자수/ 졸업생수)	취업자수
1999	47(37)	1781	82,514(41.6)	3,575	29,575	9,155(30.8)	17,100
2000	47(37)	1707	71,891(40.5)	3,471	28,623	10,830(37.8)	15,164
2001	47(37)	1628	61,446(38.5)	3,419	26,612	11,037(41.5)	13,418
2002	46(35)	1583	53,559(36.5)	3,381	22,387	10,548(47.1)	10,631
2003	46(34)	1535	49,898(35.4)	3,321	17,983	11,366(63.2)	6,114

※() 안은 부산시 전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은 <표 II-3>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취업자수는 199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진학자수는 2003년 기준 57.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

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99-2003.
(<http://www.moe.go.kr/servlet/BulletinServlet?cmd=list>)

고 무직자수와 과학이 안된 졸업자의 수가 1999년의 5.5%, 4.6%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2.3%,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취업률은 줄어드는 반면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근로 노동기피 현상과 대학문호의 확대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대학 진학선호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산업의 구조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기능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편승한 현상⁹⁾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 평생교육체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실업교육이 종국교육에서 계속교육체제로 전환의 필요성과 실업계 고교의 진학선호도에 따른 대응이 마련되어야한다.

<표 II-3>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추이¹⁰⁾

단위 : 명(%)

연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1999	112,130(38.5)	148,478(51.0)	797(0.3)	16,007(5.5)	13,480(4.6)
2000	122,170(42.0)	149,543(51.4)	523(0.2)	10,508(3.6)	8,303(2.9)
2001	121,411(49.9)	130,968(48.4)	481(0.2)	10,140(3.7)	7,393(2.7)
2002	115,103(49.8)	104,138(45.0)	347(0.1)	6,155(2.6)	5,384(2.3)
2003	109,234(57.6)	72,212(38.1)	251(0.1)	4,305(2.3)	3,504(1.8)

한편 부산의 실업계 고교출신자의 진로현황은 <표 II-4>에서와 같이 전체 졸업자중 진학자가 2003년 기준 63.2%로 전국 통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

9)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p.35.

10)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99-2003,
(<http://www.moe.go.kr/scrvlet/BulletinServlet?cmd=list>)

있다. 이것은 부산이 전국에 비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하며, 부산의 실업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II-4> 부산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추이¹¹⁾

단위 : 명(%)

연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1999	9,155(30.8)	17,100(57.8)	48	1,635(5.5)	1,637(5.5)
2000	10,380(37.8)	15,164(53.0)	77	1775(6.2)	777(2.7)
2001	11,037(41.5)	13,418(50.4)	25	1489(5.7)	643(2.4)
2002	10,548(47.1)	10,631(47.5)	17	511(2.3)	680(3.0)
2003	11,366(63.2)	6,114(34.0)	2	207(1.2)	294(1.6)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저조한 취업률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며, 취업을 전제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기본 정책방향은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입학 문호 확대, 실업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과 밀착된 직업교육체제 마련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표 II-5>와 같다. 특히 2005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의 신설, 실업고생의 대학입시에 동일계 비율 확대전형, 정원 외 3% 입학허용 등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이상 중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 기관으로써 실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1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99-2003,
(<http://www.moe.go.kr/servlet/BulletinServlet?cmd=list>)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업계고의 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학비지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은 실업교육의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산학협동 강화와 실업계 고교학생 무시험 기술자격 부여방안은 실업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¹²⁾

<표 II-5> 실업교육 육성방안¹³⁾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실업계 고교 대학입학 문호 확대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실업계 고교학생 정원 외 입학 허용 - 동일계 입학정원의 3%이내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2005년부터) - 직업탐구영역신설
실업교육 여 건 조성을 위 한 투자 확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실업계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 학비 감면을 2004년까지 15%→30%확대 실업계고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2002년 급당 35명으로 감축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업교 육체제 마련	산학협동 참여업체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 실고생 무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부여 - 1인 1종목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실고 교원 전문 직무능력 개발·활용 - 산업체 현장연수 실시 - 특수분야 전문직 직업경험자 취업 방안 마련

12) 이선숙, “부산의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Workshop 및 2003학년도 동명대학 2+2연계교육 연말 평가회』, 동명대학, 2003, p.47.

13) 정천영,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제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포럼』,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2000, p.29.

2. 실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현행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은 동법 제104조의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한 고등보통교육 중에서 전문직업교육에 속하며, 그 교육목표는 ‘상업과 경영에 관한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¹⁴⁾고 하였다.

우리 나라는 1899년 공식적으로 실업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행 교육체제의 모태인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은 광복 직후부터이며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개정¹⁵⁾되었다.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관련 산업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완성 교육의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근래에 와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적 수준 향상, 고학력 사회의 도래 및 지식사회의 기술요구수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산업 사회에 진출하여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평생 교육의 체제 내에서 중학교의 교육을 바

1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p.60.

15) 앞의 책, p.175.

탕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 등의 보통 교육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정, 유아, 복지, 관광 서비스 등 관련산업에 관한 기초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 중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은 학생에게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시키며, 관련 직업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 직업교육체제 내에서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 동안 개정된 교육과정 중 제6차 교육과정과 2002년 3월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을 비교 해보면 <표Ⅱ-6>과 같다. 계열별 필수과목 및 학과별 필수과목에서는 상업계열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계열필수 과목으로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등의 3개 과목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상업부기과목과 전자계산일반 과목의 명칭이 각각 회계원리와 컴퓨터일반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상업계열 필수과목은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등의 3개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중 상업계열 고등학교는 상업 및 경영에 관련된 교과를 주로 이수하는 고등학교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6차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직업과정 및 심화선택 과목(기술·가정영역에서의 기업경영)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상업교육은 역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표 II-6> 제6차·7차 전문교과 교육과정 비교(상업에 관한 교과)¹⁶⁾

구분	과 목	기 준 학 과
6차	상업경제·전자계산일반·상업법규·상업부기·경영대요·상업계산·마케팅·문서실무·기업회계·세무회계·상업영어·프로그래밍Ⅱ·전자계산실무·상업미술·그래픽디자인·비서일반·속기·사무자동화일반·상업실무·상품·유통관리일반·원가회계·무역업무·국제경제·자료처리·경제통계·상업디자인일반·컴퓨터그래픽·비서실무실습·기타	상업과·회계과·무역과·비서과·정보처리과·관광경영과·상업디자인과·기타
7차	상업경제·회계원리·경영대요·상업계산실무·기업회계·세무회계·국제경영·국제상무·전자계산실무·시각디자인일반·시각디자인실무·컴퓨터그래픽·비서일반·사무자동화일반·문서실무·광고일반·유통정보실무·컴퓨터일반·상업법규·경영실무·원가회계·회계실무·무역영어·자료처리·프로그래밍실무·사진·그래픽디자인·관광경영실무·비서실무·사무자동화실무·마케팅·유통관리일반·기타	경영정보과·회계정보과·정보처리과·관광경영과·사무자동화과·통상정보과·시각디자인과·비서과·유통경영과·기타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필요한 전문과목을 82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중 상업 계열 학교에서는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 일반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나 진학

16) 이용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개선 방안”, 『직업교육환경화를 위한 Workshop 및 2003학년도 동명대학 2+2연계교육 연담 평가회』, 동명대학, 2003, pp.13-14.

물의 증가 등에 의해 상업계 고등학교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학과별 과목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과목을 <표Ⅱ-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목 군별로 차별화 하였다.

<표Ⅱ-7> 상업계열 과목군

학 과	과 목
경영정보 및 관광경영	경영대요, 상업법규, 상업계산실무, 경영실무, 관광경영실무
회계정보	기업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계실무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	국제경영, 무역영어, 국제상무, 마케팅, 광고일반, 유통관리일반, 유통정보실무
비서 및 사무자동화	비서일반, 비서실무, 문서실무, 사무자동화일반, 사무자동화실무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일반, 사진, 시각디자인실무, 그래픽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정보처리	자료처리,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실무

둘째,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연계성 및 단계적 성취도를 달성시키기 위해 교육내용을 <표Ⅱ-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별화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기초이론 교과 수준은 실무교과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리중심으로 되어있고, 실무기본 교과 수준은 실무심화 교과의 사전단계로서 실무기초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심화 교과 수준은 전공영역의 실습 중심으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으로 되어 있다.

<표 II-8> 수준별 교육과정

수 준	과 목
기초이론 교 과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경영대요, 상업법규, 국제경영, 시각디자인일반, 비서일반, 사무자동화일반, 마케팅, 광고일반, 유통관리일반
실무기본 교 과	기업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국제상무, 자료처리, 사진, 그래픽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실무심화 교 과	상업계산실무, 경영실무, 회계실무, 무역영어,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실무, 시각디자인실무, 관광경영실무, 비서실무, 사무자동화실무, 문서실무, 유통정보실무

나. 2년제 대학 경영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한국에 단기고등교육기관이 설치된 것은 광복 이후 ‘중견 산업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1949년 2년제 초급대학의 발족이 시초였으며 1979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고등교육법 47)을 교육목표로 지금의 전문대학이 되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전(前)단계로서의 성격과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사회진출을 겨냥한다는 성격의 2가지 특성¹⁷⁾을 가지고 있다.

2년제 대학의 기능도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대단히 다르나, 공통적인 기능은 중견 직업인의 양성, 성인 교육의 실시, 지역 사회 봉사, 고등교육 대중화에 일익 담당,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준비 등을 들 수 있다. 이

17) 주광선 외, 『전문대학 정책성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3, pp.34-35.

러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중견 직업인의 양성에 있다.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2년제 대학교육을 종국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계속해서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둘째, 성인 교육의 역할 수행이다. 즉 평생동안 배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인 교육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2년제 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견 직업인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이다.

2년제 대학의 경영관련학과의 교육목표는 기업경영의 실무를 담당할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일반이론과 실천적인 관리기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습득시키는 교육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론을 기초로 한 실천적 교육방법을 통하여 경영학의 각 이론을 실무에 적용시키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위의 2년제 전문대학의 기능을 바탕으로 부산 동명대학 비즈니스 정보계열의 2003학년도 교육과정을 예로 살펴보면 <표 II-9>에서와 같이 전공과목으로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통상학개론, 회계이론, 재무회계, 전산회계, 무역실무, 경영자료처리, 재무관리, 무역영어,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워드프로세서실습 등의 과목이 있다. 그 외에 교양과목으로 영어회화, 일어회화, 법학개론, 전산학개론, 직업윤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p.63.

<표 II -9> 2년제 대학 경영관련학과 교육과정

학년	교과목	학수
1학년	경영학원론 · 경제학원론 · 통상학개론 · 회계원리 · 보험학개론 · 재무관리 · 인사관리 · 무역실무 · 워드프로세서실습 · 전산회계 · 시스템분석및설계 · 전자상거래론 · 운영체제 · 프로그래밍언어 · 부가가치세법 · 회계이론 · 조세법개론 · 소득세법 · 재무회계 · 전산회계	전공
	영어회화 · 법학개론 · 전산학개론 · 직업윤리 · 창의성개발	교양
2학년	경영과학 · 경영조직 · 생산관리 · 인적자원관리 · 의사결정시스템 · 회계정보시스템 · 데이터베이스구축실무 · 경영통계학 · 재무회계 · 재정학 · 원가관리회계 · 재무관리 · 회계감사 · 회사법 · 회계학연습 · 무역영어 · 해상보험론 · 실용영어 · 금융실무 · 선물시장론 · 마케팅 · 통상실무 · 데이터베이스	전공
	일어회화 · 사고와표현 · 전통문화와가치 · 한국민족문화사 · 소의계충과 사회복지	교양

다. 연계된 전공과목의 교육과정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위한 열린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2년제 대학 혹은 4년제 대학에 연계된 교육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동일계 대학의 진학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진학 희망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2년제 대학으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등과 상호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 선발 시 전원 또는 우선 선발함으로써 학생은 제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하여 대학 입학이 보장되거나 쉬워지고 또한 대학에서 학습할 내용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된다.

(1) 연계된 경영관련과목

경영학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영학과는 현대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한 각종 영리조직 및 비영리조직체의 경영에 관한 일반논리 및 관리기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 응용방법의 습득 및 전인적 인격의 함양에 노력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경영관련과목은 경영대요, 상업경제, 상업법규, 국제경제과목이다. 이는 기초 이론 교과에 속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실무 능력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경영 정보과는 물론 다른 학과 학생들이 경영과 관련된 실무를 익히고, 필요한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활용되는 과목이다.

2년제 대학에서의 경영관련과목은 <표Ⅱ-9>에서와 같이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조직, 의사결정시스템 등이 있다. 이는 경영 전반에 관한 체계와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과목으로서 현대기업의 기본개념, 목적 및 기업 경영의 중요 기능 분야에 관해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데 목적

19) 『학과 가이드 및 대학평가』, 중앙교육, 2003, p.11.

을 둔다.

(2) 연계된 회계관련과목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경제 환경 아래에서 기업을 비롯한 기업조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회계정보의 측정과 보고 및 관리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회계학과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지닌 회계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²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회계관련과목은 상업계열 공통필수과목으로서, 회계 전반에 관한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여 회계 실무자로서의 기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초 이론 교과에 속한다. 이에는 상업부기, 공업부기,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회계과목 등이 있다.

2년제 대학에서의 회계관련 과목은 앞의<표II-9>에서와 같이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조세법개론, 전산회계, 회계정보시스템 등의 과목이 있다. 이는 회계의 기본개념, 기능 및 정부조직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키고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절차와 원칙을 습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계된 무역관련과목

무역학과는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거래는 물론 서비스, 기술, 자원 등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현상, 국제상거래상의 각종 상관습 및 법리 등을

20) 앞의 책, p.147.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제경제분야, 국제상학분야, 국제경영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을 연구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²¹⁾ 특히 통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통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무역관련과목은 무역업무에서 배우며, 2년제 대학에서는 <표Ⅱ-9>에서와 같이 무역학원론, 무역실무, 보험학개론, 통상학개론, 통상실무, 무역영어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

(4) 연계된 전산관련과목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로 특정 지어지며, 경제, 경영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수요에 선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있는 정보전문인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²²⁾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전산관련 과목으로는 컴퓨터 일반, 자료처리, 문서실무, 프로그래밍 등이 있는데 이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정보처리 능력을 길러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에 중점을 두어 구성된 과목이다. 그리고 2년제 대학에서의 전산관련과목은 <표Ⅱ-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워드프로세서실습,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 경영자료처리 등이 있다. 이는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조직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활용법을 실습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21) 앞의 책, p.41.

22) 앞의 책, p.111.

실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전공과목별로 연계된 과목은 <표Ⅱ-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10> 전공과목별 연계과목

	실업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1. 경영관련과목	경영대요, 상업경제 상업법규, 국제경제	경영학원론, 경영과학, 경영조직, 경제학원론,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2. 회계관련과목	상업부기, 공업부기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회계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재무회계
3. 무역관련과목	무역업무, 마케팅 무역영어, 유통관리	무역실무, 마케팅, 무역영어, 통상학 개론, 통상실무
4. 전산관련과목	문서실무, 자료처리 전산계산일반, 사무 자동화, 프로그래밍	워드프로세서실습, 경영자료처리,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 데이터 베이스

이와 같이, 연계된 전공과목에 대한 연계교육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이 교과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동일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들 과목에 대하여 신취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³⁾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중국교육의 성격을 강조하여 제한된 분야만을 다루고 있어 수요자의 선택폭도 매우 협소하고 그만큼 학습자의 개인적 적합

23) 이성숙,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6.

성 및 유용성과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개념이 국가경제정책, 인력수급, 산업사회의 변화, 개인의 요구에 따라 국가적 수준에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조정, 통합하고 전공별로 체계화하여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고숙련의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직업교육을 기간학제로 한 교육체제로 재정립해야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2년제 대학, 산업대학 진학 등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²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초직업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2년제 대학과 수직적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과 연계된 직업교육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24) 이성숙, 앞의 논문, p.26.

Ⅲ. 교육과정 및 학업 성취도의 개념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curriculum’은 경주로를 의미하는 ‘currere’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내용과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 또 그 연한 내에서의 학습시간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문화 또는 생활경험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그들 학습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묶은 교육계획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사용하던 ‘교과과정’ 또는 ‘학과과정’과는 그 뜻을 달리하게 된다. 즉 교과과정이란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학습의 영역을 뜻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학습 및 생활영역의 총체를 뜻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의미를 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이스(Zais)는 교육과정의 정의를 ① 학습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② 교과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③ 계획된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④ 학교의 후원 하에 “갖게 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⑤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결과로서의 교육과정, ⑥ 활동을 위한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⑦ 교육과정의 철충적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²⁵⁾

25) Zais, R. S., *Curriculum: Principles and foundations*. Harper & Row,

그리고 타일러(Tyler)는 『교육과정과 수업지도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라는 책에서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의 설정에서 시작하여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및 학습 지도)을 거쳐 평가에까지 이르고, 다시 평가의 결과가 다음의 교육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념화했다.²⁶⁾

나. 교육평가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평가의 목적은 교육이 행동변화를 가져왔느냐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란 단어는 1930년부터 사용되었으며 타일러는 교육평가를 교육 과정과 교수프로그램에 비추어 교육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하였다.²⁷⁾

교육평가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평가 대상에 대해 가능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기능을 평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둘째, 학업성취수준을 총평한다. 셋째, 교육자료나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넷째, 정책구안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다섯째, 공공기금의 지출을 점검한다. 이상에서 교육평가의 목적은 교육을 도와주는 기능이지 구속하는 기능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육평가가 교육대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평가의 기능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교육의 진행과정에

Publishers, 1976, pp.6-14.

26) 진영은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탐구』, 학지사, 2002, p.113 에서 재인용.

27) 성태제,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2002, p.25 에서 재인용.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외에 신입생 또는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능이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단위나 지역단위의 학업 성취도 시험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여부를 점검하는 책무성 평가 기능도 교육평가의 중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점은 책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교육평가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가 평가 대상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평가 준비 보고서가 가식적으로 혹은 허위로 작성되어 평가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없을 뿐더러 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평가자체가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고 할 때 학생들은 복습을 할 것이다. 즉, 평가를 예고할 때 평가와 관련된 준비를 함으로써 행위를 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²⁸⁾

교육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평가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교육과정 평가’의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이 두 차원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환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즉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알아보고, 교육프로그램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며, 그 결과를 교육목표 설정 단계로 환류 함으로써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전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행한다.²⁹⁾ 이 점에서 교육평가는 교육 실천의 ‘마무리’ 활동이면서 동시에 ‘시작’ 활동이기도 하다.

28) 성태세, 앞의 책, pp.28-29.

29) 김영은 외, 앞의 책, p.127.

2.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학습자 자신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투자 한 것에 비하여 과연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³⁰⁾ 즉 학업 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학업 성취는 대체로 지적목표의 달성을 의미하지만 지적목표의 성공과 실패는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태도와 가치면, 학습관련 행동면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결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지적영역의 능력 이외의 많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캐롤(Carroll)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차 변인인 적성, 수업 이해력, 학습 지속력과 수업의 질, 학습기회를 들고 있다. 또 그는 학업 성취의 학습자 변인으로서 적성, 수업이해력 및 수업지속력을 들고 있다. 여기서 수업 지속력은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며 다음과제를 수행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수업 이해력이란 교사의 설명과 학습자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이러한 능력은 전통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일반지능과 언어능력이, 추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³¹⁾

블룸(Bloom)은 캐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학업 성취를 결정짓는데 선행학습이 50%, 정의적인 특성이 25%, 수업의 질이 25% 정도씩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블룸은 학업 성취의 중요 요소로서 출발점행동과 수업의 질을 들고 있다. 출발점행동(entry behavior)은 한

30) 조승재,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과학사, 2002, p.23.

31) 이성숙, “산업계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p.28 에서 재인용.

학습과제를 학습해 내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적 및 정의적 특성을 말한다. 학습자의 지적 특성은 학습할 과제에서 요구되는 실행학습과 특수적성 및 일반지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의적 특성이란 자아개념, 흥미, 성취동기, 태도 등을 의미하는데, 결국 지적 및 정의적 출발점행동이 학업 성공의 가능성을 65%정도 결정해 준다고 주장한다.³²⁾

학교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지적 투입행동에는 학습자의 지능, 적성, 독서력, 실행학습 등이 있고, 정의적 행동특성에는 흥미, 태도, 자아개념, 성취동기, 불안, 성격 등이 있다. 여러 지적 투입행동 중 대표적인 변인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이 학업 성취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블랭거(Boulanger)는 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연구 34편을 통합 분석한 결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48로 밝혀냈다.³³⁾ 한편 구병두는 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21편의 관련 학위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들의 상관관계로 .522를 얻었다.³⁴⁾ 이는 블랭거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켄센(Jensen)은 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³⁵⁾

첫째, 일반지능검사와 교육적 성취간의 상관은 평균 .50정도이지만 학교 수준별 상관계수의 평균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초등학교는 .60~.70, 중·고등학교는 .50~.60, 대학생은 .40~.50 그리고 대학원생은 .30~.4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성장하고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두 번

32) Bloom, B.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1976, pp.371-375.

33) Boulanger, D. F., "Ability and Science Learning: A Quantitative Synthesi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8, 1980, pp.113-121.

34) 구병두,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Meta)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89, p.35.

35) 윤경희, "학업성취 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강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pp.135-136 에서 재인용.

인의 상관계수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력의 상승에 따라 경험의 분화가 증진되고 연령증가에 따라 학업 성취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 교육을 받는 한 시점에서 측정한 지능지수와 그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측정한 학업 성취간의 상관은 시간적으로 순서를 바꾼 이전의 학업 성취와 이후의 지능지수간의 상관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업 성취가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지능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은 연구에 따라 심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학업성취 척도, 학업 성취가 평가된 학교수준, 피험자 및 표집집단의 이질성과 표집된 교육환경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 대해 에이젠(Eigen)과 펠드허센(Feldhusen)의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지능이 학업 성취에 주는 영향은 선행학습과 비교할 때 아주 적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일요인으로 학업 성취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그 성취를 예언하는데는 지능지수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³⁶⁾

학업 성취와 관련되는 정의적 특성 요인 중 성취동기 요인을 살펴보면 구병두는 그의 연구에서 중위권의 학업 성취 집단은 성취동기 수준이 높았다³⁷⁾고 보고하고 있고, 장상호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의 학교에서의 행동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성취동기와 학업 성취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36) 정범모, 앞의 책, p.146 에서 재인용.

37) 구병두, 『학업성취의 관련변인』, 양서원, 1996, p.154.

고 밝혔다.³⁸⁾ 박용현은 성취동기는 지능과 관계없이 육성되며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성적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³⁹⁾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맥클랜드(McClelland)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학업 성취 사이의 상관계수는 .51로 나타나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⁴⁰⁾. 콜브(Kolb)는 지성취아를 위한 성취 동기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취 동기 훈련을 받은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내었다.⁴¹⁾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특성과 지적 특성의 관계는 기본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함에 있어서 학습수준은 질적으로 향상하면서 양적으로는 학습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나선형⁴²⁾적인 특징을 가진다. 학습자의 인성발달은 정의적 특성과 지적특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의 성공적 지적 발달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서적 적응, 대인관계, 자아개념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아개념에서 우리는 지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의 나선형적 영향을 가장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아동이 학교나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거둔 성취는 그의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든 이 자아개념은 그의 이후 수행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자아개념은 일종의 개인적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한다.⁴³⁾

지금까지 살펴본 학업 성취도와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지능은 평균 .50정도의 상관성이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관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정의적 특성 중에 학업 성취

38) 장상호, 『지력과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6, p.84.

39) 박용현, 『성취동기육성의 교수방안』, 교육출판사, 1974, p.173.

40) McClelland, D. C., *The Achieving Society*, N. Y.: The Free Press, 1961, pp.231-233.

41) Kolb, D. A.,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for Underachieving Bo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1965, pp.783-792.

42) 진영은 외, 앞의 책, p.45.

43) 유경희, 앞의 논문, pp.138-139.

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성취동기, 태도, 자아개념, 능동적 관심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인들은 학업 성취도에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⁴⁴⁾

학교 교육에서 학업 성취의 문제는 교육자·피교육자·학부모와 주변의 관련자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변화이며, 그것은 성공적인 학업 성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개인차나 개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집단에서 획일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 개인의 적성개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과제는 개인의 적성을 발굴하여 개발시키는데 교육목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지적, 정의적 변인들 즉, 학습자의 지능, 적성, 독서력, 선행학습 등과 흥미, 태도, 자아개념, 성취동기, 불안, 성격 등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해 많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조사도구의 미비, 조사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학생들이 취득한 대학의 학점으로 학업 성취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44)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2002, p.148.

IV. 부산의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대학 학업 성취도 분석

1. 연구의 대상

본 장에서는 2년제 대학의 경영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간의 전체성적 및 연계된 전공과목의 성적과 교양과목에 대한 성적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간의 성적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4개 2년제 대학의 경영관련학과 주간에 재학중인 2학년 37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Ⅲ-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별에서 남자가 256명(69%), 여자가 115명(31%)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열에서는 인문계가 45.8%, 실업계가 54.2% 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3월 29일부터 2003년 4월 3일까지 연구자가 표본 대상 학교의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 회수하였으며 총 400부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170부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201부로 총371부(92.7%)가 회수되었다.

<표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	구성비(%)	누적빈도	누적구성비(%)
성별	남자	256	69	69	69
	여자	115	31	31	100
계열	인문계	170	46	46	46
	실업계	201	54	54	100

나.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기법

(1) 설문지의 구성내용

설문지의 구성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일반적 자료 ② 고등학교와 관련된 자료 ③대학진학과 관련된 자료 ④ 전체성적에 대한 학업 성취도 ⑤ 연계된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⑥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⑦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련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설문지의 구성

영역	질문내용
I. 기초자료	1. 성별 2. 계열 3. 학과명
II. 고등학교와 관련된 자료	1.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 정도 2.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3.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III. 대학진학과 관련된 자료	1. 대학진학에 대한 만족도 2.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3. 학과선택에 대한 고려 4.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 정도
IV. 전체성적에 관한 자료	1. 1학년 1학기 전체 성적 2. 1학년 2학기 전체 성적
V. 전공과목에 관한 자료	1.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2.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전공수업의 흥미 정도 4. 전공수업의 이해 정도 5. 전공수업의 만족도 6.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7.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 8. 전공이론과 실습과목의 이해 정도 9. 전공교과의 이해부족 사유 10. 경영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11. 회계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12. 무역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13. 전산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VI. 교양과목에 관한 자료	1.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 2. 전공과목 대비 교양과목의 성적
VII.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자료	1. 졸업 후 학생진로에 대한 의견 2.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생각

(2) 설문지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백분율을

통한 응답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응답자간의 설문 응답은 유의수준 0.05에서 X^2 (Chi-Square) 적합도 검정을 통하여 독립성 및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또한 성적에 관한 설문 응답은 두 집단간의 평균값을 구하여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분석하였다.

2. 가설의 설정

첫째, 고교 생활에의 만족도는 인문계 졸업자보다 실업계 졸업자가 높았을 것이다.

둘째,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이론교과에서는 인문계 졸업자가, 실습교과에서는 실업계 졸업자가 높을 것이다.

셋째,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실업계 졸업자보다 인문계 졸업자가 높을 것이다.

3. 설문내용의 분석

가. 고등학교와 관련된 견해

(1)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 정도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의 정도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표Ⅲ-3>과

같이 2년제 주간대학이 187명(50.4%), 4년제 주간대학이 164명(44.1%), 4년제 야간대학이 12명(3.2%), 2년제 야간대학이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던 경우는 인문계, 실업계를 합쳐 5.4%에 그치고 있어 주간 대학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출신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졸업자는 4년제 주간대학을, 실업계 졸업자는 2년제 주간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이 많음을 보여준다.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정도에 있어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Ⅲ-3> 고등학교에 목표로 한 대학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2년제 야간대학	0	8(3.9)	8(2.2)
2	2년제 주간대학	64(40.0)	119(59.2)	187(50.4)
3	4년제 야간대학	2(1.1)	10(5.0)	12(3.2)
4	4년제 주간대학	100(58.9)	64(31.9)	164(44.1)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2)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 <표Ⅲ-4>와 같이 설문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53명(41.2%), 다소 만족했다 117명(31.5%), 다소 불만족했다 73명(19.7%), 매우 만족했다 20명(5.4%), 매우 불만족했다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문계 졸업자는 만족한 편으

로 응답한 학생이 31명(18.2%), 불만족한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46명(27.0%)으로 불만족이 많았으며, 실업계 졸업자는 다소 만족한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106명(52.7%), 불만족한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81명(40.3%)으로 인문계 졸업자의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문계 졸업자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과도한 입시부담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Ⅲ-4>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	실업계 (%)	계(%)
1	매우 불만족했다	6(3.5)	2(0.9)	8(2.2)
2	다소 불만족했다	40(23.5)	33(16.4)	73(19.7)
3	보통이다	93(54.7)	60(29.8)	153(41.2)
4	다소 만족했다	28(16.4)	89(44.5)	117(31.5)
5	매우 만족했다	3(1.9)	17(8.4)	20(5.4)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3.183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불만족을 1로 매우 만족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3)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앞의 (2)번 설문에서 “다소 불만족했다, 매우 불만족했다” 라고 응답한 학생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Ⅲ-5>와 같이 인문계 졸업자는 학업 성적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7명(80.4%)으로 나타났고, 실업계 졸업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29.4%)이었다. 이

것은 인문계 졸업자는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성적부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일 것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고교 졸업 후 불투명한 미래와 중학교 성적부진으로 인한 인문계 입학 실패가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교 1학년 때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0.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서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Ⅲ-5>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	실업계 (%)	계(%)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0	10(29.4)	10(2.7)
2	학업성적 때문에	37(80.4)	7(20.5)	44(11.9)
3	미래에 대한 불안감	4(8.6)	13(38.4)	17(4.6)
4	대학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1(2.4)	1(2.9)	2(0.5)
5	기타	4(8.6)	3(8.8)	7(1.9)
합 계		46	34	80
$X^2 = .000$ (유의수준 0.05)				

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견해

(1) 대학 진학에 대한 만족도

대학 진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Ⅲ-6>과 같이 보통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197명(53.1%), 다소 불만족이 94명(25.3%), 다소 만족이 60명(16.2%),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이 각각 10명(2.7%) 순으로 나타났다.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4년제 대학을 목표로 삼았던 인문계 졸업자 보다 2년제 대학을 목표로 삼았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려준다.

<표Ⅲ-6> 대 학 진 학 에 대 한 만 족 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불만족하다	2(1.2)	8(3.9)	10(2.7)
2	다소 불만족하다	45(26.4)	49(24.7)	94(25.3)
3	보통이다	109(64.2)	88(23.8)	197(53.1)
4	다소 만족한다	12(7.0)	48(23.8)	60(16.2)
5	매우 만족한다	2(1.2)	8(3.9)	10(2.7)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450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불만족을 1로 매우 만족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2)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현재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Ⅲ-7>과 같이 취업 때문으로 응답한 학생이 169명(45.6%), 사회적 인식을 좋게 받기 위해서가 73명(19.7%), 더 배우고 싶어서가 49명(13.2%),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22명(5.9%) 순으로 나타났다.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문계 졸업자는 취업 때문에 2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98명으로 57.6%를 차지한 반면, 실업계 졸업자는 취업, 사회적 인식, 계속 교육이 각각 35.3%, 24.8%, 20.3% 순으로 동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Ⅲ-7> 대 학에 진학하게된 동기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더 배우고 싶어서	8(4.7)	41(20.3)	49(13.2)
2	사회적 인식을 좋게 받기 위해서	23(13.5)	50(24.8)	73(19.7)
3	취업 때문에	98(57.6)	71(35.3)	169(45.6)
4	주변사람들 권유로	4(2.3)	18(8.9)	22(5.9)
5	기타	37(21.9)	21(10.7)	58(15.6)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3) 학과 선택에 대한 고려

현재의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표Ⅲ-8>과 같이 앞으로의 전망 때문으로 응답한 학생이 110명(29.6%), 성적 때문에 92명(24.8%), 부모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60명(16.2%), 적성이나 소질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명(13.2%)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항목 중 인문계 졸업생은 성적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0.2%로 여러 항목 중 제일 많았으나, 실업계 졸업생은 앞으로의 전망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9.3%로 여러 항목 중 제일 많았다. 이것은 5%의 유의 수

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Ⅲ-8> 학과선택에 대한 고려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적성이나 소질	22(12.9)	28(13.9)	50(13.2)
2	성적 때문에	51(30.2)	41(20.3)	92(24.8)
3	앞으로의 전망	31(18.2)	79(39.3)	110(29.6)
4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37(21.7)	23(11.4)	60(16.2)
5	기타	29(17.0)	30(14.9)	59(15.9)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4)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정도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Ⅲ-9>와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20명(59.3%), 다소 불만족이 83명(22.4%), 다소 만족한다가 59명(15.9%), 매우 불만족하다가 5명(1.3%), 매우 만족한다가 4명(1.1%)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문계는 2.417이고 실업계는 2.915로서 실업계가 약간 높으나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742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의 학과 적성에 대한 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 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불만족하다	1(0.5)	4(1.9)	5(1.3)
2	다소 불만족하다	40(23.5)	43(21.3)	83(22.4)
3	보통이다	98(57.6)	122(60.6)	220(59.3)
4	다소 만족한다	29(17.0)	30(14.9)	59(15.9)
5	매우 만족한다	2(1.4)	2(1.3)	4(1.1)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929		$X^2 = .742$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불만족을 1로 매우 만족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다. 전체 성적에 대한 학업 성취도

(1) 1학년 1학기 전체 성적

학생들의 1학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 전체에 대한 평점·평균을 설문 조사한 결과 <표Ⅲ-10>과 같이 3.5이상이 95명(25.6%), 3.0이상이 92명(24.8%), 2.5이상이 77명(20.7%), 2.5이하가 54명(14.6%), 4.0이상이 53명(14.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문계 졸업생의 경우 3.5이상이 52명(30.5%), 3.0이상이 39명(22.9%), 2.5이하가 40명(23.5%), 2.5이상이 14명(8.4%) 이고 실업계 졸업생의 경우는 3.0이상이 53명(26.3%), 2.5이상과 3.5이상이 각각 43명(21.3%)이고 2.5이하가 34명(16.9%)이었다. 위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문계가 3.164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2.940으로 인문계 졸업자의 성적이 좋았

다. 이것은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3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1학년 1학기 전체 성적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3.5이상의 성적에서는 인문계 졸업자 수가 실업계 졸업자 수보다 많은 것은 전반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 준 결과로 보여진다.

<표Ⅲ-10> 1학년 1학기 전체성적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2.5 이하	20(11.8)	34(16.9)	54(14.6)
2	2.5 이상	34(20.0)	43(21.3)	77(20.7)
3	3.0 이상	39(22.9)	53(26.3)	92(24.8)
4	3.5 이상	52(30.5)	43(21.3)	95(25.6)
5	4.0 이상	25(14.7)	28(13.2)	53(14.3)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989		$X^2 = .003$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2.5이하를 1로 4.0이상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2) 1학년 2학기 전체 성적

학생들의 1학년 2학기에 수강한 전체과목에 대한 평점·평균을 설문 조사한 결과 <표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이상이 102명(27.5%), 3.0이상이 96명(25.8%), 4.0이상이 93명(25.0%), 2.5이하가 43명(11.7%), 2.5이상이 37명(12.0%)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생의 경우 3.5이상 67명(39.4%), 3.0이상 36명(21.1%), 4.0이상(19.0%), 2.5이상 20명(11.7%), 2.5이하 15명(8.8%)순이고 실업계 졸업생은 4.0이상 61명(30.3%), 3.0이상 60명(29.9%), 3.5이상 35명(17.4%), 2.5이하 28명(14.0%), 2.5이하 17명(8.4%)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문계가 3.476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3.418로 인문계 졸업자의 성적이 좋았다. 따라서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1학년 2학기 전체 성적에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학년 1, 2학기 전체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1학기 보다 2학기 성적이 대체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표Ⅲ-11> 1학년 2학기 전체성적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2.5 이하	15(8.8)	28(14.0)	43(11.7)
2	2.5 이상	20(11.7)	17(8.4)	37(12.0)
3	3.0 이상	36(21.1)	60(29.9)	96(25.8)
4	3.5 이상	67(39.4)	35(17.4)	102(27.4)
5	4.0 이상	32(19.0)	61(30.3)	93(25.1)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3.312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2.5이하를 1로 4.0이상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라. 연계된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1)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실업계 졸업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목이 대학교과목 수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표Ⅲ-12>에서 다소 도움이 된다가 70명(35.0%), 보통이다 64명(32.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4명(16.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명(15.0%), 매우 도움이 된다 3명(1.5%)순으로 나타났다.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294로 실업계 고교 출신자의 경우 고교 때 배운 전공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2>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30(15.0)	30(15.0)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34(16.5)	34(16.5)
3	보통이다	0	64(32.0)	64(32.0)
4	다소 도움이 된다	0	70(35.0)	70(35.0)
5	매우 도움이 된다	0	3(1.5)	3(1.5)
합 계		0	201	201
$X^2 = .294$ (유의수준 0.05)				

(2)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인문계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9명(40.8%), 보통이다 57명(33.1%), 다소 도움이 된다 29명(17.1%), 매우 도움이 된다 14명 (8.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명(0.5%)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737로서 고등학교 때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3>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목이 대학 강의 수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5)	0	1(0.5)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69(40.8)	0	69(40.8)
3	보통이다	57(33.1)	0	57(33.1)
4	다소 도움이 된다	29(17.1)	0	29(17.1)
5	매우 도움이 된다	14(8.5)	0	14(8.50)
합 계		170	0	170
$X^2 = .737$ (유의수준 0.05)				

(3) 전공 수업의 흥미정도

연계된 전공 수업에 대한 흥미정도를 설문한 결과 <표Ⅲ-14>에서와 같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68명(45.3%), 지루한 편이다 138명(37.2%), 다소 흥미롭다 56명(15.1%), 몹시 지루하다 7명(1.9%), 매우 흥미롭다 2명(0.5%)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의 흥미정도도 인문계 졸업자가 2.776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2.791로써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259를 나타내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정도는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Ⅲ-14> 전공수업의 흥미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	실업계 (%)	계(%)
1	몹시 지루하다	1(0.5)	6(2.9)	7(1.9)
2	지루한 편이다	65(38.3)	79(36.4)	138(37.2)
3	보통이다	77(45.3)	91(45.4)	168(45.3)
4	다소 흥미롭다	25(14.7)	31(15.4)	56(15.1)
5	매우 흥미롭다	2(1.2)	0	2(0.5)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752		$X^2 = .259$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몹시 지루하다를 1로 매우 흥미롭다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4) 전공수업의 이해정도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Ⅲ-15>와 같이 보통이다 로 응답한 학생이 180명(48.5%), 이해가 잘 안된다 138명(37.2%), 이해가 잘되는 편이다 47명(12.7%), 전혀 이해가 안된다 4명(1.1%), 매우 이해가 잘된다 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의 평균값이 2.782이고, 실업계 졸업자의 평균값이 2.711로 인문계 졸업자의 평균값이 조금 높다. 그러나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157로서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는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5>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혀 이해가 안된다	0	4(1.9)	4(1.1)
2	이해가 잘 안된다	65(38.2)	73(36.3)	138(37.2)
3	보통이다	79(46.4)	101(50.2)	180(48.5)
4	이해가 잘되는 편이다	24(14.1)	23(11.4)	47(12.7)
5	매우 이해가 잘된다	2(1.1)	0	2(0.5)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743		$X^2 = .157$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를 1로 매우 이해가 잘된다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5)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Ⅲ-16>과 같이 보통이다 222명(59.8%),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95명(25.6%), 다소 만족한다 48명(12.9%),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4명(1.1%), 매우 만족한다 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가 2.805이고 실

업계 졸업자는 2.910으로 인문계 졸업자보다 실업계 졸업자의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적어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6으로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Ⅲ-16> 전공수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1(0.5)	3(1.4)	4(1.1)
2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46(27.0)	49(24.3)	95(25.6)
3	보통이다	110(64.7)	112(55.7)	222(59.8)
4	다소 만족한다	11(6.4)	37(18.6)	48(12.9)
5	매우 만족한다	2(1.4)	0	2(0.5)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862		$X^2 = .006$ (유의수준 0.05)		

※평균값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대를 1로 매우 만족하대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이상과 같이,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정도·이해정도·만족도 모두 인문계 졸업자보다 실업계 졸업자의 평균값이 조금 높았으나 X^2 검정 결과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전공수업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설문한 결과 <표Ⅲ-17>과

같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3명(52.4%), 교과목이 어려워서 27명(32.9%), 교수들의 자질부족 8명(9.8%), 교육시설의 미비가 1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자의 경우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38명(86.4%)으로 제일 많은 응답을 보였고,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는 교과목이 어려워서가 23명(60.5%)으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이것은 적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의 유의 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7> 전공수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적성이 맞지 않아서	38(86.4)	5(13.1)	43(52.4)
2	교육시설의 미비	1(2.3)	0	1(1.2)
3	교과목이 어려워서	4(9.0)	23(60.5)	27(32.9)
4	교수들의 자질 부족	1(2.3)	7(18.4)	8(9.8)
5	기타	0	3(8.0)	3(3.7)
합 계		44	38	82
평균값 = 1.953		$X^2 = .000$ (유의수준 0.05)		

※평균값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를 1로 교수들의 자질 부족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7)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

전공수업이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를 설문한 결과 <표Ⅲ-18>과 같이 적성에 맞아서가 46명(36.5%),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가 33명(26.2%), 배운 과목이 많아서가 24명(19.0%), 전공성적이 좋아서가 20명(15.9%), 기타가 2명(1.6%), 교육시설이 좋아서가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가 0.000으로 0.05의 유의수준에서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 ‘적성에 맞아서’가 48.1%를 나타냈고,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 ‘배운 과목이 많아서’가 32.4%로 가장 많이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8> 전공수업이 만족스러운 이유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적성에 맞아서	2(18.2)	5(13.8)	7(14.9)
2	교육시설이 좋아서	1(0.9)	0	1(2.1)
3	전공성적이 좋아서	4(36.3)	2(5.5)	6(12.7)
4	앞으로의 전망	3(27.3)	26(72.2)	29(61.7)
5	배운 과목이 많아서	0	1(2.7)	1(2.1)
6	기타	1(0.9)	2(5.8)	3(6.5)
합 계		11	36	47
$\chi^2 = .025$ (유의수준 0.05)				

(8) 전공이론과 실습과목의 이해정도

전공이론과목과 실습과목 중 더 어려운 과목은 무엇인가라는 설문 결과 <표Ⅲ-19>과 같이 전공이론과목이 212명(57.1%), 전공실습과목이 159명(42.9%)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는 전공이론과목에 대해 59명(34.7%), 전공실습과목에 대해서는 111명(65.3%)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는 반대로 전공이론과목에 대해서 153명(76.1%)이 전공실습과목에 대해서는 48명(23.9%)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즉, 인문계 졸업자는 전공실습과목이 실업계 졸업자는 전공이론과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이해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혀 선행학습이 되어있지 않는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 암기력이 요구되는 전공이론과목이 실습과 훈련이 요구되는 전공실습과목보다 쉽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는 고등학교 3년간 실습과 훈련으로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전공실습과목이 쉬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Ⅲ-19> 전공이론과 실습과목의 이해정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공이론 과목	59(34.7)	153(76.1)	212(57.1)
2	전공실습 과목	111(65.3)	48(23.9)	159(42.9)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9) 전공교과의 이해부족 사유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교과의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표Ⅲ-20>에서와 같이 교재내용의 이해부족이 143명(38.5%), 그 교과에 대한 흥미부족 100명(27.0%),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 과목의 지식부족이 74명(19.9%), 영어등 외국어의 과다사용이 7명(1.9%)순으로 응답했다.

인문계 졸업자는 교재내용의 이해부족이 50.2%로 응답비율이 제일 높았고 실업계 졸업자는 그 교과에의 흥미부족이 30.3%로 제일 높았다. 이것은 실업계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으로 배운 과목이 많아서 지겨움을 느껴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전공교과에의 이해부족 사유에는 인문계와 실업계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0> 전공교과의 이해부족 사유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기초과목(수학,물리,화학)의 지식부족	16(9.4)	58(28.8)	74(19.9)
2	외국어(영어)의 과다사용	3(1.7)	4(1.9)	7(1.9)
3	그 교과에 흥미부족	39(22.9)	61(30.3)	100(27.0)
4	교재내용의 이해 난이	85(50.2)	58(28.8)	143(38.5)
5	기타	27(15.8)	20(10.2)	47(12.7)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10) 경영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경영관련과목에 대한 성적을 설문한 결과 <표Ⅲ-21>과 같이 보통이다 228명(61.5%)이고, 대체로 좋지 않다 61(16.4%), 대체로 좋다 56명(15.1%), 매우 좋다 19(5.1%), 매우 좋지 않다 7명(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련과목에 대한 성적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가 3.213이고, 실업계 졸업자가 2.990으로 인문계 졸업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1> 경영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1(0.5)	6(2.9)	7(1.9)
2	대체로 좋지 않다	39(22.9)	22(10.9)	61(16.4)
3	보통이다	85(51.1)	143(71.1)	228(61.5)
4	대체로 좋다	28(16.4)	28(13.9)	56(15.1)
5	매우 좋다	17(9.1)	2(1.2)	19(5.1)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3.051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다를 1로 매우 좋다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11) 회계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회계관련과목에 대한 성적을 설문한 결과 <표Ⅲ-22>와 같이 보통이다 176명(47.4%), 대체로 좋지 않다 120명(32.3%), 대체로 좋다 45명(12.1%), 매우 좋다 22명(5.9%), 매우 좋지 않다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관련과목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2.894와 2.855로서 근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 실업계 졸업자가 우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것으로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상업과목 위주에서 정보·컴퓨터 관련과목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상업부기등 회계관련과목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는 회계관련과목의 성적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2> 회계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0	8(3.9)	8(2.2)
2	대체로 좋지 않다	57(33.5)	63(31.3)	120(32.3)
3	보통이다	89(52.3)	87(43.2)	176(47.4)
4	대체로 좋다	9(5.2)	36(17.9)	45(12.1)
5	매우 좋다	15(9.0)	7(3.7)	22(5.9)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873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다는 1로 매우 좋다는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12) 무역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무역관련과목에 대한 성적을 설문한 결과 <표Ⅲ-23>과 같이 보통이다 209명(56.3%), 대체로 좋지 않다 95명(25.6%), 대체로 좋다 44명(11.9%), 매우 좋다 18명(4.9%), 매우 좋지 않다 5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관련과목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가 3.105로 실업계 졸업자의 2.78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무역관련과목의 성적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표Ⅲ-23> 무역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0	5(2.5)	5(1.3)
2	대체로 좋지 않다	42(24.7)	53(26.4)	95(25.6)
3	보통이다	83(48.8)	126(62.6)	209(56.3)
4	대체로 좋다	30(17.6)	14(6.9)	44(11.9)
5	매우 좋다	15(8.9)	3(1.6)	18(4.9)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932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다는 1로 매우 좋다는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13) 전산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전산관련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결과 <표Ⅲ-24>와 같이 보통이다 178명(48.0%), 대체로 좋다 98명(26.4%), 대체로 좋지 않다 36명(9.7%), 매우 좋지 않다 35명(9.4%), 매우 좋다 24명(6.5%), 순으로 나타났다.

다.

두 집단간의 전산관련과목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가 3.000으로 실업계 졸업자의 3.19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워드프로세서나 문서실무 등을 고등학교 때 배운 실업계 졸업자가 인문계 졸업자보다 실습과목인 전산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전산관련과목의 성적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표Ⅲ-24> 전산관련과목의 학업 성취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30(17.6)	5(2.4)	35(9.4)
2	대체로 좋지 않다	17(10.1)	19(9.4)	36(9.7)
3	보통이다	63(37.0)	115(57.2)	178(48.0)
4	대체로 좋다	43(25.2)	55(27.3)	98(26.4)
5	매우 좋다	17(10.1)	7(3.7)	24(6.5)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3.107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다를 1로 매우 좋다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마.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1)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

교양과목에 대한 성적을 설문한 결과 <표Ⅲ-25>와 같이 보통이다 199명

(53.6%), 대체로 좋지 않다 88명(23.7%), 대체로 좋다 40명(10.7%), 매우 좋다 23명(6.3%), 매우 좋지 않다 21명(5.7%)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과목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해 보면 인문계 졸업자가 3.117로 실업계 졸업자의 2.681보다 높게 나타나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 졸업자보다 교양과목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학 등의 과목에서 실업계 졸업자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교양과목의 성적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5>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8(4.7)	13(6.4)	21(5.7)
2	대체로 좋지 않다	31(18.2)	57(28.3)	88(23.7)
3	보통이다	82(48.2)	117(58.2)	199(53.6)
4	대체로 좋다	31(18.2)	9(4.7)	40(10.7)
5	매우 좋다	18(10.7)	5(2.4)	23(6.3)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881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음을 1로 매우 좋음을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2) 전공과목대비 교양과목의 성적

전공과목에 비해 교양과목에 대한 성적은 어떠한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Ⅲ-26>과 같이 비슷하다 161명(43.4%), 다소 좋지 않다 111명(29.9%), 다소 좋다 67명(18.1%), 매우 좋다 28명 (7.5%), 매우 좋지 않다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 비해 교양과목 성적의 평균값은 인문계 졸업자가 3.194로 실업계 졸업자의 2.8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교양과목의 성적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6> 전공과목대비 교양과목의 성적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매우 좋지 않다	0	4(1.9)	4(1.1)
2	다소 좋지 않다	55(32.3)	56(27.8)	111(29.9)
3	비슷하다	45(26.4)	116(58.0)	161(43.4)
4	다소 좋다	51(30.0)	16(7.9)	67(18.1)
5	매우 좋다	19(11.3)	9(4.4)	28(7.5)
합 계		170	201	371
평균값 = 2.989		$X^2 = .000$ (유의수준 0.05)		

※ 평균값은 매우 좋지 않다를 1로 매우 좋다를 5의 값으로 주고 계산한 것임.

바. 졸업 후 진로계획

(1) 졸업 후 학생진로에 대한 의견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문지 결과는 <표Ⅲ-27>와 같이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191명(51.5%), 전공 분야에 취업이 82명(22.1%), 전공 학과로 편입이 66명(17.8%), 다른 학과로 편입이 31명(8.4%) 순으로 나타

났다.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는 취업이 68.2%, 편입이 30.8%인데 비해,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는 취업이 78.1%, 편입이 21.9%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실업계 졸업자와 인문계 졸업자 모두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진로에 대한 의견은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5로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표Ⅲ-27> 졸업 후 학생진로에 대한 의견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전공 분야에 취업	33(19.4)	49(24.4)	82(22.1)
2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	83(48.8)	108(53.7)	191(51.5)
3	전공 학과로 편입	43(25.2)	23(11.4)	66(17.8)
4	다른 학과로 편입	10(5.6)	21(10.5)	31(8.4)
합 계		170	201	371
$X^2 = .005$ (유의수준 0.05)				

(2)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생각

졸업 후 진학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표Ⅲ-28>과 같이 졸업 후 곧 진학할 것이다 104명(28.0%),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97명(26.2%), 취업 후 진학할 것이다 65명(17.5%), 취업 후 생각해 보겠다 62명(16.7%), 절대 진학할 생각이 없다 43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졸

업 후 곧 진학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43.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에는 2년제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취업 후 진학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인 학생이 12.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0으로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 졸업자간에 진로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 졸업 후 진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실업계 졸업자인 경우는 진학에도 관심이 많지만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8>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생각

구분 번호	문 항 내 용	인문계(%)	실업계(%)	계(%)
1	졸업 후 곧 진학할 것이다	74(43.5)	30(14.9)	104(28.0)
2	취업 후 진학할 것이다	39(22.9)	26(12.9)	65(17.5)
3	취업 후 생각해 보겠다	9(5.2)	53(26.4)	62(16.7)
4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43(25.2)	54(26.8)	97(26.2)
5	절대 진학할 생각이 없다.	5(3.2)	38(19.0)	43(11.6)
합 계		170	201	371
$X^2 = .000$ (유의수준 0.05)				

4. 가설의 검증

부산지역 2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앞의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고교 생활에의 만족도는 인문계 졸업자보다 실업계 졸업자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정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한 대학정도 에서는 인문계 졸업자는 응답자 170명중 102명(60.0%)이 4년제 대학을, 실업계 졸업자는 응답자 201명중 127명(63.1%)이 2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교 생활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문계 졸업자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학업성적 향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듯 응답자 170명중 불만족하다로 응답한 학생이 46명(27%), 보통이 93명(54.7%), 만족하다가 31명(18.3%)으로 대체로 불만족한 학생이 많았다. 반면 실업계 졸업자들은 응답자 201명중 불만족하다로 응답한 학생이 35명(17.3%), 보통이 60명(29.8%), 만족하다가 137명(25.9%)으로 만족한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문계 졸업자는 2.894이며, 실업계는 3.428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설에 대한 Chi-sq검정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을 보여 고교생활에 대한 인문계, 실업계 졸업자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이론교과에서는 인문계 졸업자가, 실습교과에서는 실업계 졸업자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계 졸업자와 실업계졸업자의 학생들이 취득한 경영관련과목, 회계관련과목, 무역관련과목, 전산관련과목의 성적에 대해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위 4과목의 취득학점을 분석해본 결과 경영, 회계, 무역 등 이론 교과에 대한 평균집수는 인문계 졸업자는 3.071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2.877로서 인문계 졸업자의 평균집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습과목인 전산관련과목

의 평균점수는 실업계 졸업자가 3.199로 인문계 졸업자의 3.0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Chi-sq검정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을 보여 전공과목에 대한 인문계, 실업계졸업자간에 학업 성취도 차이가 있으며 본 가설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실업계 졸업자보다 인문계 졸업자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득한 교양과목에 대해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인문계 졸업자가 취득한 교양과목의 평균점수는 3.117이고 실업계 졸업자의 평균점수는 2.681이었다. Chi-sq검정에서도 5%의 유의수준에서 X^2 이 .000을 보여 교양과목에 대한 인문계, 실업계 졸업자간에 학업 성취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가설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실업교육은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하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우리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유지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경제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인문숭상과 기능경시현상,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소득 향상으로 진학 위주의 교육이 더욱 고조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체성적 및 고등학교와 연계된 전공과목,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대학수학능력 향상과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내용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여 응답을 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등학교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2년제 주간대학을 목표로, 인문계 고교 졸업자는 4년제 주간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의 임시부담 때문에 인문계 졸업자는 불만족한 편이 만족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실업계 졸업자

는 입시부담이 적어 만족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불만족으로 대답한 학생 중 그 이유로는 인문계 졸업자의 경우 성적부진이 주된 이유이고, 실업계 졸업자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이유였다.

둘째,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현재의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해 인문계 졸업자는 대체로 불만족을 표시했는데 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목표로 한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진학이유에 대해서는 인문계 졸업자는 취업 때문임이 압도적이고 실업계 졸업자는 취업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하여 로 진학이유를 밝혔다. 이는 사회생활에 학벌이 중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과선택의 이유로는 인문계 졸업자는 성적 때문으로, 실업계 졸업자는 앞으로의 전망 때문에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적성에 대해서는 인문계, 실업계 졸업자 모두 보통이거나,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학과 선택 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생들의 숙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학생들의 전체 성적에 대해서는 1학년 1학기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 졸업자보다 약간 앞선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업계 학생들이 다소 유리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뒤엎는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학년 2학기의 성적이 1학기 성적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넷째, 연계된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교의 수강과목이 대학수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인문계 졸업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공과목 수업에 대한 흥미, 이해,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인문

계 졸업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압도적인 응답이었고, 실업계 교과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전공이론과 실습과목의 이해 정도에 대해서 인문계 졸업자는 전공실습과목을, 실업계 졸업자는 전공이론과목은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인문계 졸업자는 실습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없었고, 실업계 졸업자는 교재내용의 이해부족과 영어, 수학 등의 기초과목 부진이 원인이었다.

여섯째, 경영, 회계, 무역, 전산 등 전공관련교과의 학업 성취도는 실무적인 과목인 전산과목에 대해서는 실업계 졸업자가 약간 높았으나 경영, 회계, 무역관련 교과에 대해서는 인문계 졸업자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평균 값은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 졸업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교양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 졸업자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았다. 특히 어학관련 부분에서 실업계 학생들의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인문계, 실업계 졸업자 모두 상급학교로의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했다. 특히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었다. 졸업 후 진학하는 것에 대해 인문계 졸업자는 졸업 후 진학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실업계 졸업자는 취업 후 생각해 보겠다와 절대 진학할 생각이 없다가 압도적이었다. 이것은 두 집단의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재언

이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진학자수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이상 중국교육 기관이 아닌 계속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폭넓은 기초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교과의 편제와 내용을 구성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과목의 내용을 지역과 단위 학교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하고 학습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전공 선택은 장차 한 개인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자신은 물론 학부모, 교사, 상담교사 등과 충분히 의논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 개인의 불만과 학업에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학업 성취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넷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위하여 상급학교 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는 현장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완성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실업계 계열교육과정해설-상업계열』, 200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http://www.moe.go.kr/servlet/BulletinServlet?cmd=list>)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001.

구병두,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Meta)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89.

구병두, 『학업성취 관련변인』, 양서원, 1996.

김동훈, “학벌·학력사회의 폐해와 교육관의 혁신”,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특별호, 2001.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2002.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00.

박용현, 『성취동기육성의 교수방안』, 교육출판사, 1974.

성태제,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2002.

윤경희, “학업성취 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이선숙, “부산의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Workshop 및 2003학년도 동명대학 2+2연계교육 연말 평가회』, 동명대학, 2003.

이성숙,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1.

장상호, 성취동기, 정원식 편, 『지력과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6.

정범모, 『학업성취의 요인』, 교육출판사, 1995.

정철영, “작업 교육체제 개편방안”, 『제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포럼』,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2000.

조승제,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과학사, 2002.

주광선 외, 『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3.

중앙교육, 『학과 가이드 및 대학평가』, 2003.

진영은, 조인진, 김봉석 공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탐구』, 학지사, 200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설정
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1998.

Bloom, B.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1976.

Boulanger, D. F., “Ability and Science Learning: A Quantitative
Synthesi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8, 1980.

Kolb, D. A.,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for Underachieving
Bo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1965.

McClelland, D. C., *The Achieving Society*. N. Y.: the Free Press, 1961.

Zais, R. S., *Curriculum: Principles and foundations*. Harper & Row,
Publishers, 1976.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햇볕이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의 교과과정과 그와 연계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이 실업고와 관련대학의 연계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에 빠짐없이 정성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학생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3월 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양 회 용 드림

☞ 설문지 작성요령

설문지의 각 내용을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 하나만 골라서 “V”로 표기해 주시고, 해당 항목이 없거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란 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적 자료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_____ ② 여자 _____

2. 귀하의 출신고교 계열은?

- ① 일반계열 _____ ② 실업계열 _____

3. 귀하가 소속된 대학의 학과 명은? _____

II. 고등학교와 관련된 자료

1. 귀하가 고등학교시절에 목표로 한 대학은?

- ① 2년제 야간대학 _____ ② 2년제 주간대학 _____
③ 4년제 야간대학 _____ ④ 4년제 주간대학 _____

2.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 ① 매우 불만족했다 _____ ② 다소 불만족했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다소 만족했다 _____
⑤ 매우 만족했다 _____

3. 고등학교 생활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질문에서 ①, ②에 답한 학생만 해당)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_____ ② 학업성적 때문에 _____
③ 미래에 대한 불안감 _____ ④ 대학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_____
⑤ 기타 _____

III. 대학과 관련된 자료

4. 현재의 학과에 진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_____ ② 다소 불만족 _____
③ 보통 _____ ④ 다소 만족 _____
⑤ 매우 만족 _____

5. 현재의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배우고 싶어서 _____ ② 사회적 인식을 좋게 받기 위해서 _____
③ 취업 때문에 _____ ④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_____
⑤ 기타 _____

6. 현재의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이나 소질 _____ ② 성적 때문에 _____
③ 앞으로의 전망 _____ ④ 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_____
⑤ 기타 _____

7. 현재 학과에 대한 학생의 적성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_____ ② 다소 불만족 _____ ③ 보통 _____
④ 다소 만족 _____ ⑤ 매우 만족 _____

IV. 전체 성적에 대한 학업 성취도

8. 1학년 1학기 전체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5이하 _____ ② 2.5이상 _____ ③ 3.0이상 _____
④ 3.5이상 _____ ⑤ 4.0이상 _____

9. 1학년 2학기 전체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5이하 ② 2.5이상 ③ 3.0이상
④ 3.5이상 ⑤ 4.0이상

V.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10. 실업계 고교 졸업으로 인해 현재 전공과목 성적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업계열 졸업생만 해당)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도움이 된다
⑤ 상당한 도움이 된다

11. 만약 귀하가 실업계고교를 졸업했다면 현재 전공과목 성적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계열 졸업생만 해당)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2. 현재 학생의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몹시 지루하다 ② 지루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흥미롭다
⑤ 매우 흥미롭다

13. 현재 학생의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이해가 안된다 ____ ② 이해가 잘 안된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이해가 잘되는 편이다 ____
⑤ 매우 이해가 잘된다 ____

14. 현재 학생은 전공수업에 대해 만족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____ ②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다소 만족한다 ____
⑤ 매우 만족한다 ____

15. 현재의 전공수업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번 질문에서 ①,②에 답한 학생만 해당)

- ① 적성이 맞지 않아서 ____ ② 교육시설의 미비 ____
③ 교과목이 어려워서 ____ ④ 교수들의 자질 부족 ____
⑤ 기타 _____

16. 현재의 전공수업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번 질문에서 ④,⑤에 답한 학생만 해당)

- ① 적성에 맞아서 ____ ② 교육시설이 좋아서 ____
③ 전공성적이 좋아서 ____ ④ 앞으로의 전망 ____
⑤ 배운 과목이 많아서 ____ ⑥ 기타 _____

17. 전공이론 과목과 실습과목 중 더 어려운 과목은?

- ① 전공이론 과목 ____ ② 전공실습과목 ____

18. 배우고있는 전공교과내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 ① 기초과목(수학, 물리, 화학)의 지식부족
- ② 외국어(영어)의 과다사용
- ③ 그 교과에의 흥미부족
- ④ 교재내용의 이해 난이
- ⑤ 기타

☞19~22번 문항에 대해서는 수강한 과목이 물음과 과목 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하면 물음에 응답해 주세요.

19. 경영관련 과목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대체로 좋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다
- ⑤ 매우 좋다

20. 회계관련 과목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대체로 좋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다
- ⑤ 매우 좋다

21. 무역관련 과목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대체로 좋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다
- ⑤ 매우 좋다

22. 전산관련 과목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____ ② 대체로 좋지 않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대체로 좋다 ____
 ⑤ 매우 좋다 ____

VI. 교양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23. 교양과목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____ ② 대체로 좋지 않다 ____
 ③ 보통이다 ____ ④ 대체로 좋다 ____
 ⑤ 매우 좋다 ____

24. 전공과목에 비해 교양과목에 대한 성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____ ② 다소 좋지 않다 ____
 ③ 비슷하다 ____ ④ 다소 좋다 ____
 ⑤ 매우 좋다 ____

VII. 졸업 후 진로계획

25. 졸업 후 귀하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공분야에 취업 ②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 ____
 ③ 전공학과로 편입 ④ 다른 학과로 편입 ____

26. 졸업 후 진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졸업 후 곧 진학할 것이다 ____ ② 취업 후 진학할 것이다 ____
 ③ 취업 후 생각해 보겠다 ____ ④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____
 ⑤ 절대 진학할 생각이 없다 ____

☞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지도해 주신 이대희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하봉규교수님과 김진기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은 일반사회교육 원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베풀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류태건교수님과 이정호교수님, 동명대학 이기환교수님, 후배 최명철군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희생하시고 격려해주시던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선친과 자애로움으로 희망을 주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항상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많은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민숙씨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딸 주영이와 아들 윤승이에게 이 논문이 조그만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결실을 계기로 매사에 성실하고 검허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게 힘이 되어 주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